

기업 리스크 원천에 대한 실무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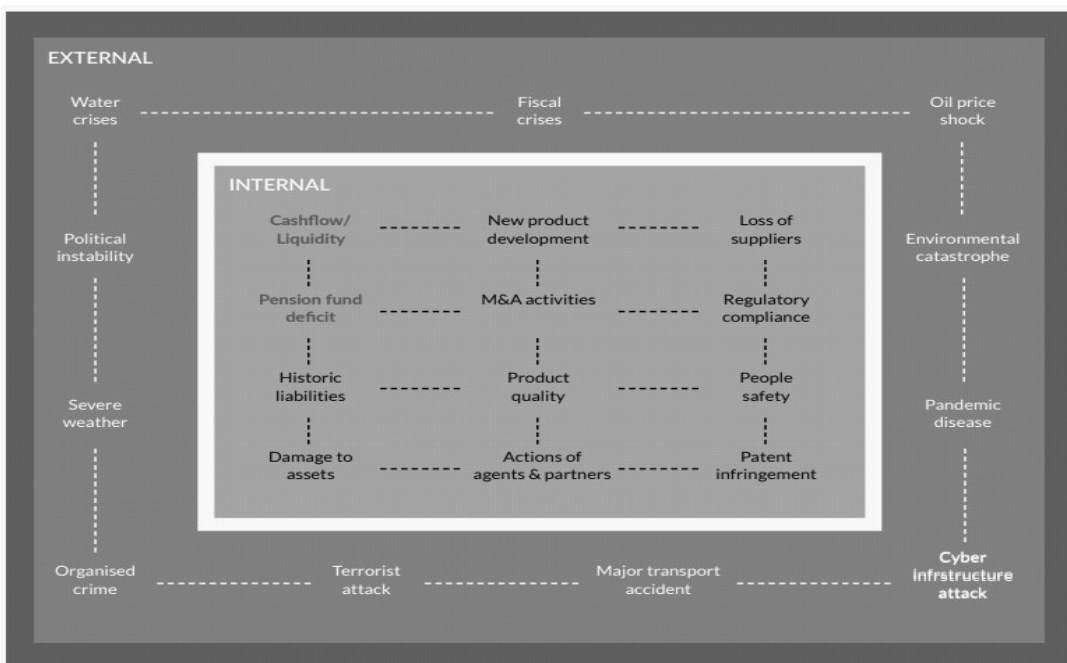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서는 리스크의 원천 (sources)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각 기업마다 경영환경이 상이하므로 리스크 원천은 다양하다. 리스크 원천을 크게 내부원천과 외부원천, 그리고 내외부 원천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리스크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영국 Airmic (the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Risk Managers in Industry and Commerce) 리스크 내외부 원천을 <그림1>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그림1: 내부와 외부 리스크 원천

■ 외부원천리스크

외부 원천 리스크는 기업의 물 부족 (예 : 가뭄으로 여수산단의 공업용수 부족), 정치적 불안정 (예 : 미얀마 군부 정권), 아르헨티나 재정위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과 수산업 피해, 오일 쇼크, 테러와 사이버 인프라 공격 등이 예이다.

외부 원천 리스크 요인의 대표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이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은 리스크의 중요한 외부 원천에 해당한다. 다른 외부 원천에 의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략리스크에 속하는 ‘경쟁’이 있다. 자기 회사가 지금까지 시장 우위를 점하던 제품이 갑자기 나타난 경쟁자에게 시장을 뺏기며 몰락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최근 반도체 1위 기업이었던 인텔의 추락이 사례일 수 있다. 최근에 부각되는 외부 원천 리스크는 환경 및 재난과 관련된 리스크이다. 환경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공해, 오염물질 배출이나 산업재해에 더욱 민감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청된다.

■ 내부원천리스크

내부 원천은 조직 내부에서 발원한 리스크이다. 우선 재무리스크에 해당하는 유동성리스크가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부적절하여 은행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거나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직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의 사건이 유동성리스크에 해당된다. 재무관리 담당임원(CFO)는 이러한 유동성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자금 조달과 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내부 원천은 회계정보와 관련한 운영리스크이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자금 횡령이나 자금 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해외 수주를 위한 사전 원가정보에 오류가 있어 실제적 프로젝트 수주의 손실을 보는 경우이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확산과 하이브리드 인프라 및 클라우드 도입의 가속화로 IT 환경이 분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 사이버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IT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resiliency)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내외부원천에의한리스크

내·외부 원천에 기인한 리스크도 많다. 대표적으로 사후 서비스업무와 관련한 리스크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품질 불량이나 A/S에 대한 고객의 불만 등이다. 때로는 블랙컨슈머와 같은 악의적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리스크도 적지 않다. 글로벌로 Value Chain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시되고 있다.

상기한 리스크 원천을 요약하여 예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2〉 리스크 원천 : 예시

